



# 대한개원의협의회 Korean Medical Practitioners Association

우)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www.koreadoctors.org]/T. 02.6350.6691/ F.02.792.1296  
담당 과장 현상원 / E-mail: hyun7368@koreadoctors.org

문서번호 대개협 제21-0051호

시행일자 2021. 8. 25.

수 신 각과 (개원) 의사회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의료기관 대상 기획소송 피해사례 수집 협조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거: (대의협 제751-6525호) 의료기관 대상 기획소송 피해 현황 파악  
관련 협조요청의 건

3. 상기 관련, 일부 변호사가 SNS상에서 성형외과 수술결과 등에 대한 불만족  
또는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환자들을 모집한 후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겁박  
하는 행위를 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토록 사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이에, 의협은 성형외과 및 타 과 의료기관에 대한 동 행위 관련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 진행예정인 바, 본 협의회에 요청한 아래 사항을 전달드리오니 2021. 9. 3.  
(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의료기관 대상 기획소송 피해사례에 관한 현황 제출(증거자료 포함)

나. 회 신 처: hyun7368@koreadoctors.org (대한개원의협의회 사무국)

※문의 ☎02-6350-6691

첨부. 의협공문. 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우)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 8층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31/ 전송(02)796-4487  
의무법제국 국장 김상구[6573] 법무팀장 김성진[6683] 팀원 손제호[6531]/ E-mail : sjeah@hanmail.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 751-6525 호

시행일자 2021. 8. 23.

수 신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대상 기획소송 피해 현황 파악 관련 협조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협회는 일부 악의적인 변호사가 ‘유튜브’ 나 ‘인터넷 성형카페’ 등과 같은 SNS를 통해 성형외과 수술 불만족 또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모집한 후, 해당 환자를 부추겨 경찰을 대동해 병원을 방문하게 하여 의무기록지 발급을 요청하게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도록 사주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3. 해당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비방 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하거나,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야 합의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종용하면서 1인 시위 등 병원의 평판이 저해될 만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있는바, 우리협회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회원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피해사건이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귀 회의 관련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제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료기관 대상 기획소송 피해사례에 관한 현황(증거자료 포함)

나. 회신기한 : 2021. 9. 3.(금)

다. 회신처 : sjeah@hanmail.net

라.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법무팀 손제호 팀원(02-6350-6531)

붙임 : 1) 메디칼타임즈, 개원가에 ‘합의금 사냥꾼’ 등장...성형외과의사회 피해 수집 중  
(2021.05.03.) 1부

2) 메디칼타임즈, 합의금 사냥꾼 몸살에 성형외과의사회 화났다(2021.05.17.)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개원가에 '합의금 사냥꾼' 등장...성형외과의사호해 수집중

|부작용 경험 환자들에게 자문으로 시작...소송 전략 알려줘

원종혁 기자 기자 (news@medical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 유튜브에서 성형 부작용 채널을 구독하던 환자 A씨는 고심끝에 영상을 봤을 때를 가진 한 변호사에 수임을 맡긴다. 어렵지 않은, '그'의 친절함 상담에 믿음이 컸다.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에서,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꼭 남겨야 손해배상시 유리하다고 했다. 또 기관 비방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일도 중요했다. 당시 주요 포탈에 올리는 여러 비방글 대에 '악의적' 목적을 가졌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이후,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댈 곳은 수임 변호사 뿐. 친절했던 그는 처음과 달랐다. 통화시 하지 않자 고성을 지르거나 겁박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된 수개월 끝에 남겨진,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말할지 막막했다.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에는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이다. 단순히, 허술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로 인한 법적 분쟁 문제가 아니었다.

메디칼타임즈가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

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납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과정 끝에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 **'의무기록지 안줄 것 같다?' 경찰 민원·악성 비방글 작성까지..."2차피해 상당해"**

현재 유튜브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소송 상담 콘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소송건과 마찬가지로, 성형 부작용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영상 콘텐츠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카테고리다. 손해배상 사례나 무료 소송 상담, 수임 등이 그 것. 병원 법무팀 경력을 가진 변호사 A씨도 그 곳에 있었다. 몇 년에 올라온 영상 콘텐츠 다수는, 수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병원을 고소해 의사가 재판을 받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의 불편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해달라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실제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경찰112 종합상황실'에 기재된 일부 민원사례에도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애초에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아, 경찰을 통해 의무기록지를 받기 위해 대동을 부탁했다'는 내용.

다시말해, 해당 병의원측이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주지 않자 경찰 민원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발급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경찰 출동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다.



여기서도 쟁점은 나온다. 환자가 의무기록지를 요청했을 때, 즉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건은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통해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문제인 만큼,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다는 민원만으로 출원한 민원이 병원을 압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민원을 넣도록 지시한 것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소송 피해를 당한 강남의 P성형외과의원은 "수임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그루밍(Grooming)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저 관하소연으로 끝낼 문제도 아니다.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자와 경찰이라는 공권력, 의료진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차례 올리고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 특히 추후 환자·병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글 가운데 일부는 네이트판에 3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상적 진료를 보던 병의원 상황을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후, 해당 악성 비방글을 올린 환자에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같은 고소·고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청한 한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지시에 따른 비방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렸다가 해를 입은 병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왔다"며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얘기와 달리 본인을 해를 입히고 변호를 부탁했지만 이후 고성과 겁박을 주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접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입은 의원의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법변호사협회에선 주임조사위원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환자들과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

## 관련기사

- '비급여 진료비' 일정 공개에 개원가 "당혹스럽다" 일색
- 허술한 진료기록 의사 욕된다...잇단 유죄 판결에 '발끈'
- 의료 접근성 만큼 쉬워진 사법 접근성...분쟁보다 안정 유도해야
- 의대 교수 60% "접종 후 업무지장 경험...휴가 필요"
- 의협회장 만드는 숨은 일꾼들...선거캠프 파트너 눈길
- 첨바법 타고 주목받는 세포치료제...제도 개선도 한창

---

원종혁 기자 기자 (news@medicalltimes.com)

---



# '합의금 사냥꾼' 몸살에 성형외과의사회 화났다

원종혁 기자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성형외과 개원가가 부당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는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놓고 변호사협회와 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할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 의사회 차원에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한변 (이하 변협)를 비롯한 경찰청 등 사정당국에 공문을 보내 진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변협 회장단과의 회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승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변협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에 국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3 남을 주선 중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 성형외과 개원가는 현재 해당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현장 사정을 들어 큰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거론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등)을 세세히 관여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지 않으니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를 지양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의료소송의 진행과 병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나 의사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회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 보호에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

## 관련기사

- 개원가에 '합의금 사냥꾼' 등장...성형외과의사회 피해 수집중
- 허술한 진료기록 의사 옥진다...잇단 유죄 판결에 '발끈'
-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원장 항소에도 징역 1년 유지